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Measure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local accountants**

**박 미 희 (세무회계과)**  
**Mi-Hee, Park (Dept. of Tax Accounting)**

Key Words : Local accounting, Expertise, Accounting specialist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BSTRACT : In recent years, interest in local accounting has increased and measures have been prepared to enhance expertise, but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incentives act as mo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as a 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local accounting personnel.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ing professional officer system. The professional officer system is a professional public official system that enhances expertise in public officials and allows them to continue to work in fields that require long-term employment. However, since local governments that are still implementing the accounting professional officer system are insignifican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accounting specialist system. Second, It is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ing responsibility officer system. The accounting responsibility officer system is a system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o more transparently manage the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tate subsidies, which are constantly controversial in the local accounting laws. However, although accountability management was introduced in 2015,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that is being implemented seems to be very insignificant. Therefore, the government urgently needs the accounting responsibility officer system. Third, It is continuous accounting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accounting official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nducted the "2018 National Accounting Specialized Education" 12 times from June 20 to November 2018 for accounting officials in each department. This was a meaningful education that focused 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centered on practical cases and operated post-education services, but the problem is that regular education is not being conducted continuously. Since the first Korea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wards held last year, each local government has provided a series of accounting officials training, but systematic education is still needed according to continuous and practical-oriented programs to strengthen accounting officials' capabilities. Fourth, This i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ruitment of new accounting professionals.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recruitment of new accounting professionals, the goal of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As an approach to achieving this goal, it is a certification addition point system for accounting majors.

Currently, five points are given to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ax accountants, and customs certificates in each accounting series, but if the first successful applicant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ax accountants, and customs agents reflect two additional points, many talents who have not obtained professional certificates are expected to apply for the accounting posi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ew recruitment will be sufficiently recruited for accounting positions with basic accounting knowledge.

## 1. 서론

2007년 1월 1일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부회계의 개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는 중앙정부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지방회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지적이 있다. 특히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계에서나 정계에서 꾸준히 인력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전문성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5월 19일<sup>1)</sup>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회계공무원 전문직 추진 방안으로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전문직위로 지정되면 경력 평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지급과 전문직위로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에서 8천여 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을 개최하였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중 예산운용과 결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을 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의 회계투명성과 재정보고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제1회에서는 제주도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규정이 가능하다. 특히, 논의대상에 따라 전문성의 개념적 범위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논의대상이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냐에 따라 전문성의 개념적 범위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규정도 가능한 바, 일반적으로 전문성이란 특정분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의 역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흔히 전문가로 지칭되는 특정의 직업군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 지칭되는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역량을 규정하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가 보유해야할 역량으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권위, 전문적 서비스 독점에 대한 사회적 승인, 자기규제 윤리규범, 애타지향적인 전문직 문화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역량의 요소들을 유형화하면, 크게

1) 2016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지적 측면에 해당되는 요소들과 행태적 측면에 포함되는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전문성이란 특정분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 측면 및 행태적 측면의 특정역량을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전문가란 이러한 상태를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은 모든 전문가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변수가 아니라 전문가군 별 차별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는 의술과 관련된 지적 측면의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는 법률과 관련된 지적 측면의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 집단군별로 요청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며, 규범을 준수할 때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이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공직에 근무한 경험의 축적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직 지식을 보유하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과 해당 분야의 주요정책 개발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유관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집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 처리방식을 의미한다. 공무원 전문성은 행정의 전문성과도 연결된다. 행정전문성은 정부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조직화하여 통합·조정하는 조직적 전문성을 말하며, 공공부문의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의 전문성에 의하여 실현된다. 세분화·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각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조정하는 공무원들의 조직화된 전문성이 없이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정책형성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재필,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성 증대 방안을 효율성 있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역할을 규정한 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전문성 강화방안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및 현행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 방안

### 2.1 선행연구

이장순·김이배(2018)는 공무원시험 행정직(회계) 직렬에서 회계학 과목이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의 중요도와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고 정부회계에 적합한 회계학 교재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의 교육방법인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를 공부한 후 정부회계를 공부하는 방법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 없는 행정직(회계) 직렬의 경우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선발과정에서의 중요성(필요성)과 향후 업무에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형성·황성원(2016)은 5급, 7급, 9급의 일부 직렬에 대하여 현직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공무원 시험과목이 해당 직렬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의 중요도(전문성)와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관세직과 세무직의 경우, 관세법은 중요도가 4.84, 활용도는 4.76으로 나타났으며, 무역학은 중요도와 활용도가 각각 4.57과 4.5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과 회계학 모두 중요도와 활용도가 각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직의 경우에도 세법개론과 회계학 모두 중요도와 활용도가 각 4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직(회계)을 보면 똑 같은 회계학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3.50, 활용도는 3.00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직 직렬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행정직(회계) 직렬의 경우는 기업회계에 기반을 둔 회계지식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된 국가회계기준에 기반을 둔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이배·정광화(2017)는 정부회계는 행정학의 재무행정과 회계학이 결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회계학의 정부회계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미비점이 있고 행정학의 재무행정 입장에서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재무행정교재는 예산회계 위주로 설명되어 있고 정부회계 교재는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중열·심재영(2009)은 정부회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에서 정부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교육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정부회계가 대학의 회계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부회계 교재가 저술되어야 하고, 정부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인재(2012)는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를 위해서는 회계분야의 전문성 교육보다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여 재정 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재정관리직을 신설해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개방형 충원이나 중앙정부 결산 업무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권장과 교육방법의 다원화로 강의식 훈련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정부회계의 교육부터 현직에 근무하는 회계공무원의 역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회계직렬 시험과목의 중요성과 정부회계 시험문제의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다루었던 공무원시험제도와 현직 공무원들이 지방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전문인력 증대방안과 공무원의 시험교과목과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 2.2 현행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 방안

현행 행정안전부에서는 회계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5급 이하 회계공무원 전문직위(군) 지정 및 전보제한 강화, 본청 회계과에서 사업소·보조사업자 등 계약사무 통합 수행, 회계공무원 소통 강화 및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다.

### 2.2.1 5급 이하 회계공무원 전문직위(군) 지정 및 전보제한 강화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회계업무는 관련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우대, 전문직위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본청 회계(재무)과 지출·계약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군) 지정 및 선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전문 직위(군) 지정 시 전보 제한 : 전문직위 3년, 전문직위 군 5년, 경력평정 시 가산점 : 1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 가산(1점 한도), 전문직위 수당(5급 이하 기준) : 근무기간(1~4년)에 따라 월 70천원~400천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회계공무원 전보제한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하여 (현행) 지자체 지출원, 현금출납원이 2년 이상 근무 후 전보를 개정하여 3년 이상 근무로 변경하였다.

### 2.2.2 본청 회계과에서 사업소·보조사업자 등 계약사무 통합 수행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소속기관인 농촌기술센터, 소방서 등은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직, 소방직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담당 하므로 인해 관련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계업무 관련 비리 예방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는 본청 회계과(재무관)에서 수행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 재무회계규칙(훈령)에 소속기관의 예산 중 일정금액 이상 계약 건은 본청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 금액 이상 계약 건은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 8천만원, 물품·용역 : 5천만 원이다. 지자체 본청 회계과에서 수행 할 있는 계약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토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하여 공사 : 2억원 또는 8천만원→5천만원, 물품·용역 : 5천만원 → 2천만원으로 변경하였다.

### 2.2.3 회계공무원 소통 강화 및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 확대 및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e 호조' 메인 페이지에 「지식정보 커뮤니티」 방 개설하여 회계 관직 권한이 있는 회계공무원 간 정보 제공, 회계업무처리 과정 상 의문사항 등을 문답할 수 있도록 실시간 메신저 채팅(5만 여명) 공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e 호조 유지관리 홈페이지에 토론게시판 신설→(2차) 실시간 메신저 채팅 개설하여 조기집행, 법령 개정사항 등 회계 관련 현안업무 전달 등을 위해 행자부 ↔ 지자체 간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온나라 이음 연계)한다.

## 2.2.4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행안부는 예산 및 세무업무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회계업무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한다. 예산업무공무원의 경우, 월 150천원, 세무업무공무원의 경우 월 100천원으로 연간 소요액(243개 기관/ 3,021명) : 36억 25백만원, 지자체별 평균 소요액 : 연 14.9백만 원이다. 다만,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시·도 및 시·군·구 본청 회계업무 부서 공무원(지출, 계약, 결산, 공유재산)으로 한정하였다.

## 3. 지방회계사례 및 공무원 시험과목

### 3.1 지방회계사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회계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지방회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회계 제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고, 예산낭비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막고자 지속적인 회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 업무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1.1 광주광역시 사례 - 회계전문학교

광주광역시는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2019 상반기 회계전문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회계전문학교에서는 광주시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분야·계약분야·재무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분야별로는 ① 회계의 일반원칙과 투명하고 청렴한 예산집행(회계분야) ② 계약담당자의 준수사항과 주요 조문 제정 스토리로 이해하는 계약법령(계약분야) ③ 복식부기의 개념과 자주 쓰는 분개(재무회계) 등이다. 회계전문학교는 광주시가 회계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회계업무 교육으로 2007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 3.1.2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재정관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자치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종합 재정진단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재무정보와 각종 지표를 시의성 있게 생산해야 한다는 지자체 의지가 ‘지자체 최초의 재정관리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재무정보 품질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제주도는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에 올랐다. ‘재정관리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는 고유 진단 모델은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 계획에도 유용성이 제고된다.

### 3.1.3 기타지방의 사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3년 7월부터 복식부기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과 재무회계팀은 결산 담당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이 5년 넘게 장기근속 중이며<sup>2)</sup>, 회계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에서도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다. 자체회계교육은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기도 했으며, 경기도 내 시·군 결산담당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2005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용인시<sup>3)</sup>는 회계담당 직원 전문성 향상 위한 실무교육을 주요지적 사례에 대한 설명과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하였다. 직원들이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출·계약 실무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 업무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동군<sup>4)</sup>은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회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 분야에 대한 '2019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회계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항에 대한 보수 교육으로 매년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계약분야 방문상담 컨설팅'을 요청하여, 지방계약법령 개관, 입찰 및 계약방법의 구분, 입찰 및 계약 집행,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 등 지방계약제도 해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2) 전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1년 수준임.

3) 2018년 11월 30일 경기자치뉴스. 남현우 기자.

4) 2019년 5월 19일 대전일보 손동균 기자.

인천시<sup>5)</sup>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아카데미를 열어 재정건전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군·구 및 공사·공단 회계·계약담당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회계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계약실무 등에 대한 법령 및 유권해석, 분쟁사례중심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구례군은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구미시는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업무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3.1.4 대외적 신인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회계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 회계책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지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1> 회계대상 평가지표

평가항목 (Level1)	평가지표 (Level2)	평가기준 (Level3)	확인방법
담당공무원 전문성	재무회계 공무원수	전임, 겸임 구분한 공무원 수	홈페이지확인 설문자료추가확인
	근무연수	회계 관련 업무 수행기간	설문자료 확인
	전문성	전문관 제도 시행여부	설문자료 확인
		회계담당 공무원 중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	설문자료 확인
	회계담당 공무원 중 회계 관련 학위 보유자 수	설문자료 확인	
감사위원회	독립구조	독립적 조직, 제도 설치 여부	설문자료확인 홈페이지추가확인
	전문성	자체감사기구 회계 관련 전문가 참여	설문자료확인 홈페이지추가확인
회계교육	담당공무원 회계교육	담당공무원 회계교육 이수시간	설문자료 확인
	전문기관과의 협업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설문자료 확인

5) 2018년 10월 23일 안중삼 기자.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자치단체장 관심	재무회계결산 관련 보고 및 지시건수	자치단체장(부단체장 포함)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건수	설문자료 확인
	재무회계 결산 관련 회의 개최 건수	자치단체장(부단체장 포함)이 직접 주관한 회의 횟수	설문자료 확인
재무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회계처리 검증 및 수행과정	정확한 회계정보 입력, 증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 노력 확인	설문자료 확인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노력	정확한 회계정보 입력, 증빙의 객관성 확보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용역 수행한 경험	설문자료 확인
결산검사의견서	보고서 내용의 검토	지방의회 결산검사의견서 홈페이지 공시(5)	홈페이지확인 설문자료추가확인
		결산검사의견 평가/생략	홈페이지 확인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결산검사위원 전문성	결산검사위원 수(2점)	설문자료 확인
		전문자격 등 보유의원 수(3)	설문자료 확인
재무보고서 접근성	홈페이지 접근성 평가	홈페이지 접근성 평가(5점)	홈페이지 확인
결산보고서 영역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연계	본 예산과 최종예산 차이	홈페이지 확인
	결산서 분석지표	잉여금 비율	홈페이지 확인
결산개요 (전문가 판단)	요약 재무보고의 제공	결산서 확인	홈페이지 확인
	기간별 비교자료의 제공	결산서 확인	홈페이지 확인
	총괄적 분석 제공	결산서 확인	홈페이지 확인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정보	결산서 확인	홈페이지 확인
지방의회	질의건수	재무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질의 및 자료요청 건수	설문지 확인
	조례 제정건수	회계정보 활용 등과 관련된 조례 건수	설문지 확인
담당 공무원의 재무회계 정보 활용사례	재무회계 정보활용을 위해 노력한 사례	재무회계정보 활용 사례 건수(6)	설문지 확인
		외부용역이나 자문 건수(4)	설문지 확인
주민설명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건수 등	주민설명회 개최건수	설문지 확인
		결산서 등에 대한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건수	설문지 확인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공시	설문지 확인

### 3.2 공무원 시험제도

#### 3.2.1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회계학과목은 2차 필기시험 논문형으로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다. 근무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등을 예시하고 있다. 정부회계와 관련하여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표 2> 국가공무원 5급(행정)회계학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총330명)	시험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 (예시)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행정직 (재경)	75명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 1)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 2) 회계학에 정부회계 포함됨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목(2019년 기준) 중에서 회계학 행정직 회계직류, 세무직 세무직류, 감사직 감사직류에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부회계와 관련하여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됨을 시험 공고를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관세직, 통계직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회계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학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고 있다(김이배·정광화 2017).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표 3> 국가공무원 7급 회계학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760명)	시험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 (예시)
행정직 (회계)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전 부처
세무직 (세무)	-일반 : 76명 -장애인 : 6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감사직 (감사)	-일반 : 26명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감사원
관세직 (관세)	-일반 : 7명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관세청
통계직 (통계)	-일반 : 11명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1)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 2) 회계학에 정부회계 포함됨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과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과목들이 선택과목이라는 사실이다(김이배·정광화 2017). 그러나 2022년부터는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 내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는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역량 검증을 위해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시험 과목을 개편하게 된 것이다<sup>6)</sup>.

6) 9급·순경·소방사 시험서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부터 시행. 2019.10.29.서울=연합뉴스. 이유헌기자.

<표 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변경(2012.6.29.개정, 2019.10.29.개정)

직렬 (직류)	구분	2012.5.24.시행	2012.7.1. 현행	2022.1.1 시행예정
행정직 (재경)	공동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선택과목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직 (회계)	공동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개론, 회계원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선택과목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세무직 (세무)	공동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개론, 회계원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개론, 회계원리
	선택과목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관세직 (관세)	공동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 개론, 회계원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선택과목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감사직 (감사)	공동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원리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원리
	선택과목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들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목별로 조정점수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함.

### 3.2.2 국가공무원 시험 가산점제도

1994년 행정 전산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정보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후 응시자와 합격자의 자격증 보유가 보편화되고 정보화 자격증 취득여부가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형식적 사전 절차로 변질 되는 등 비효율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가산비율을 1%, 0.5%로 축소하였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강화, 정보화 자격증의 업무관련성 및 필요성을 감안해 2017년부터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대상에서 정보화 자격증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행 지방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공무원 시험은 가산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 5> 지방공무원 가산점제도

자 격 증	2011년 이전(개정 전)		2011년 이후(개정 후)	
	9급(가산점)	7급(가산점)	9급(가산점)	7급(가산점)
컴퓨터활용능력1급	2%	2%	1%	1%
정보처리기사	3%	3%	1%	1%
정보처리산업기사	3%	2%	1%	0.5%
사무자동화산업기사	3%	2%	1%	0.5%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1.5%	0.5%	0.5%
정보처리기능사	2%	없음	0.5%	0.5%
워드프로세서1급	1.5%	1.5%	0.5%	없음

전문성을 반영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직렬별 적용 가산점 제도가 있다. 이는 시험점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2개 이상 자격증 중복의 경우 유리한 것 한 개만 가산점으로 인정된다. 세무직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증이 있으면 5점의 추가점수를 주고 있다. 특별한 것은 경찰직이다. 경찰직은 회계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한 경우 2점의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표 6>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제도

직렬	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9급	변리사, 변호사	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직	보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5%
경찰직		9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5%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급	2%

## 4.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의 문제점 및 증대방안

### 4.1 지방회계 인력전문성의 문제점

#### 4.1.1 지방회계 담당자 순환보직제도의 문제점

순환보직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배치전환으로 근본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 직위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로 창의적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환보직은 조직 전체적으로도 보직 부적응 해소, 침체방지, 인사관리의 융통성 증대, 할거주의·부패 방지 등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순환보직이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른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특히 회계직 공무원의 잦은 전보 및 보직이동은 공무원의 회계전문 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순환보직은 연쇄적인 보직이동과 빈번한 순환전보를 가져옴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시키고, 전문성 및 행정책임성 결여의 주요인이 된다. 이는 공무원구조 측면에서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 구조로 인해 Specialist가 아닌 Generalist를 선호하고,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일렬 횡대식 일제 이동의 인사 관행, 즉 승진 접근 직위로의 순차적 이동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Z형<sup>7)</sup>의 순환루트 중심의 전보 제도로서는 전문적인 중견공무원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 평균 재직기간은 5급 2.09년, 6급 2.07년으로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쌓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이고, 과장급 국장급은 2년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보직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Z자형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상·하위 보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하위보직에서 출발, 상위보직을 모두 거친 후 진급해 다시 하위보직부터 뛴어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 4.1.2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의 회계학의 문제점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의 회계학의 문제점은 정부회계 분야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행정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작성에 정부회계는 필수적이며, 감사직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있어 정부회계를 통해 산출된 회계정보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부회계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직렬로 선택된 회계학은 정부회계 중심이 아닌 기업회계 중심인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점이다. 세무 직렬에서는 재무회계가 충분히 중요할 수 있으나 회계 직렬에서는 정부회계가 재무회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이배·정광화 2017). 특히, 감사 직렬의 경우에도, 감사원 소속인 경우 감사대상 조직들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므로 정부회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 전문성 배양을 등한시하여 시험 과목을 선정한 탓에 시험과목들이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회계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과 함께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며(강인재·신종렬 2004), 지방회계의 경우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 전문성 제고 역시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다(황국제·윤재원 2008; 이경섭 2013; 김경호 2014). 둘째, 선택과목 지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는 행정직(회계),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검찰직, 마약수사직에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나 이 중 관세직 7급, 검찰직 7, 9급 등에는 회계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회계학을 선택과목 지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4.2 지방회계 인력전문성의 증대방안

### 4.2.1 회계전문관 제도 도입

전문관 제도는 공직 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도이다. 전문관은 실무에 밝은 5~7급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1년 6개월에서 2년간량 한 자리에서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순

환보직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전문관은 한 달에 5만~20만원의 수당과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받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비교해 승진심사 등에서 전문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sup>8)</sup>. 이렇듯 전문관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회계직에서의 전문관제도는 아직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미미하다.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연수, 감사위원회 독립성, 지속적인 회계교육 등 전 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문에선 국내 최고 지자체로 뽑혔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3년 7월부터 복식부기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회계과 재무회계팀을 결산담당 공무원 3명 중 1명이 6년 넘게 장기근속 중이다. 따라서 회계전문관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4.2.2 회계책임관제 도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책임관제’가 도입되었다. 지자체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때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방회계법은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이 법안은 각 지자체의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회계를 총괄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해 각 부서의 회계관리를 재검증 하게 된다. 회계 공무원이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외에 현금 취급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 지출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 개인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회계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회계와 결산의 정확성제고 및 회계비리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통제와 관련, 지자체장에게는 회계 결산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부통제’에 일정규모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는 위임 전결을 제한해 상급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에 회계책임관제 도입이 되었으나,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체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계책임관제 도입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 있다. 또한, 회계, 분석, 결산검사,

8) 경향신문, ‘업무 익숙해질 쯤 인사이동’ .. ‘전문관’ 확대로 공무원 전문성 높인다. 2017.07.12. 백승목 기자.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및 지자체의 회계 및 결산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전문기관이 관련 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회계제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4.2.3. 회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회계교육

강인재(2012)는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를 위해서는 회계분야의 전문성 교육보다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여 재정 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재정관리직을 신설해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개방형 충원이나 중앙정부 결산 업무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권장과 교육방법의 다원화로 강의식 훈련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제시한바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018년 6월 20일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부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의 회계 및 결산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 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 이수 후에도 교육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사후교육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자 편의와 실무사례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데 많은 의미가 있었다<sup>9)</sup>.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개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른 회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무중심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4.2.4. 회계전문직 신규 충원에 대한 개선 방안

회계전문직 신규충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목표를 우수인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 으로서는 회계전공자들을 위한 자격증 가산점제도 이다.

9) 조세일보, '기재부,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교육실시' 2018년 6월 20일. 김상엽 기자.

정부는 2018년 1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인재 9급 채용전형 비중을 2017년도 보다 7.1%(180명)에서 2022년까지 20%(500여 명)로 늘리기로 하였다. 2012년 도입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직업계고·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9급 공무원 전형이다. 2019년 고졸 9급 공무원 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꿀팁으로 알려진 것은 ‘가산점제도’의 언급이었다.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으로 2점을 추가적으로 받았을 때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계 및 세무직렬에서 가산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회계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 인력들이 합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증은 5점을 주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들에게도 2점의 추가점수를 반영한다면,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회계직렬에 응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경찰직에서도 전산세무1, 2급, 전산회계1급 자격증이 있으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으므로 회계 및 세무직렬에서도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2급, TAT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의 자격증에도 2점에 추가점수를 부여한다면,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갖춘 회계직으로 충분히 신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7> 회계전문직·세무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제도 추가

직렬	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2급, TAT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	2%
회계전문직	지방회계	7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 재경관리사	2%
		9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2급, TAT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	2%

### 5.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인력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지방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방 재정 건전화와 회계공무원 전문직 추진 방안으로 3~5년간 의무적으로 지방회계직에서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계전문직위로 지정되면 경력 평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지급과 전문직위로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에서 8천여 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회계 담당자 순환보직제도 문제점이다. 회계직 공무원의 잦은 전보 및 보직이동은 공무원의 회계전문 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 평균 재직기간은 5급 2.09년, 6급 2.07년으로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쌓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이고, 과장급 국장급은 2년으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보직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의 회계학의 문제점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부회계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의 문제점 직렬로 선택된 회계학은 정부회계 중심이 아닌 기업회계 중심인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점이다. 세무 직렬에서는 재무회계가 충분히 중요할 수 있으나 회계 직렬에서는 정부회계가 재무회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이배·정광화 2017).

지방회계 인력의 전문성은 지방재정 전반과 국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지방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회계 인력증대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회계전문관제도 도입이다. 전문관 제도는 공직 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도이다. 그러나 회계전문관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미미하므로 회계전문관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회계책임관제 도입이다. 회계책임관제도는 지방회계법이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5년에 회계책임관제 도입이 되었으나,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체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계책임관제 도입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 있다. 또한, 회계, 분석, 결산검사,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및 지자체의 회계 및 결산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전문기관이 관련 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회계제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회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회계교육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018년 6월 20일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부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다. 이는 실무사례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사후교육서비스까지 운영되는 의미 있는 교육이었으나, 문제는 지속적인 정규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개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른 회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무중심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회계전문직 신규 충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회계전문직 신규충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목표를 우수인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서는 회계전공자들을 위한 자격증 가산점제도 이다. 현재 회계직렬별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증은 5점을 주고 있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1차 합격자들에게도 2점의 추가 점수를 반영한다면,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회계직렬에 응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경찰직에서도 전산세무1, 2급, 전산회계1급 자격증이 있으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으므로 회계 및 세무직렬에서도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2급, TAT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의 자격증에도 2점에 추가점수를 부여한다면,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갖춘 회계직으로 충분히 신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회계 인력 전문성 증대방안

---

이와 같이 지방회계 인력증대 방안 4가지 중 일부라도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강인재. 2012.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활용성 제고 방안: 전문인력의 양성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제10권 제1호): 1-23
- (2) 김이배·정광화. 2017.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 방안: 7급 및 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제15권 제2호): 103-124
- (3) 김형성·황성원. 2016.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5권 제2호): 32-65.
- (4) 이장순·김이배. 정부회계에 적합한 회계학 교재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제16권 제3호): 153-177
- (5) 이재필. 2010. 대구시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대구경북연구원(연구 2010-38): 1-93
- (6) 전중열·심재영.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연구. 정부회계연구(제7권 제2호): 27-57
-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지방회계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 (8) 황국재·윤재원. 2008.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도입방안. 정부회계연구(제6권 제1호): 3-36.